

## 박선호 차관, “압둘라 신도시,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모범사례”

### - 압둘라 신도시 현장방문 및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겸 주택부 장관 면담 -

- 이낙연 국무총리의 쿠웨이트 순방을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5월 1일(수) 압둘라 신도시 예정지를 둘러보고 5월 2일(목) 지난 라마단(Dr. Jinan Ramadan Boushehri) 공공사업부 겸 주택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시티 외곽에 1,950만평(약 4만호)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, ‘16년 5월 양국정부 간 업무협약(MOU) 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,
  - 현재 LH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(‘17.4~’ 19.12, 433억 원)을 진행 중이며, 금년 1.24일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간 신도시 개발투자를 위한 사업 예비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.
  - 오는 하반기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한 뒤 사업 본 약정을 체결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(SPV)을 설립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.
- 박선호 차관은 5.1일 압둘라 신도시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지 여건을 점검하고, LH사장(변창흠) 등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졌다.
  - 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“압둘라 신도시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수출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” 고 밝혔다.
- 또한, 박선호 차관은 다음 날 지난 라마단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겸

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교류·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박차관은 압둘라 신도시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인프라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쿠웨이트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.
  - 이에 지난 라마단 장관은 “한국의 압둘라신도시 개발협력에 감사하며, 앞으로 세계적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길 기대한다” 고 밝혔으며, “양국의 인프라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 고 전했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압둘라 신도시가 한국과 쿠웨이트 양국이 G2G 방식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으로 건설, IT 등 다양한 한국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19. 5. 2.  
국토교통부 대변인